

들어가면서

열왕기는 왕권의 흥망과 함께 예언자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예언의 사회적 정황(Sitz im Leben)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기원전 9 세기 이후 팔레스타인에 신앗시리아의 등장은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신앗시리아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는 신앗시리아의 뒤를 이은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역사적 사건들은 각각의 예언서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신명기 사가의 눈에 비친 왕권의 흥망성쇠의 이유를 듣는다. 신학적 설명이다.

A. 예언자 이야기

- 전기예언서와 역사서 이해
 - 정치와 관계. 신탁을 통해 전쟁의 가부와 주요 안건을 묻는다. 예) 미가야(열왕기상 22 장)
 - 예언자의 사회적 기능과 예언자들의 모순된 주장
 - ⇒ 중앙집권적(central): 지배체제의 보호 속에, 그들의 뜻을 신탁으로 지지 (여당적 색채)
 - ⇒ 주변적(peripheral): 백성들의 불만, 소망을 전달하는 기능 (야당적 색채)
- 엘리야와 엘리사
 - 엘리야는 바알숭배에 반하여 야웨신앙을 전했으며, 기존의 정치세력과 분쟁. 왕상 18:30-31
 - 엘리사는 바알제외에 대해 반대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도덕성이나 정의실현에 뚜렷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단지 초자연적/기적적 사건에 관심.
 - ⇒ 자신을 놀려대는 어린 아이들을 저주하여 꿈이 찢어 죽이게 함(왕하 2:23-25). 쇠도끼가 물에 뜨게 함(왕하 6:1-7).
 - ⇒ 정치적으로 권력에 가까이 있음 (왕하 3:11-14; **4:13**; 13:14-21)
- 북 이스라엘 멸망.
 - 신앗시리아의 등장으로 빠르게 쇠퇴. 지형적, 군사적으로 남유다보다 먼저 대응하게 됨.
 - 정치체제 면에서 남유다는 다윗왕조로 이어지는 단일 지배체제기 때문에 큰 변화없이 이어짐 (cf. 북조선인민공화국). 반면, 이스라엘 말기 20 년 남짓한 세월에 왕이 6 번 바뀐.
 - 신학적 설명
 - ⇒ 야훼 하느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왕하 17:7)
 - ⇒ “여로보암의 죄”=> 예루살렘 밖에서 희생제사를 장려했기 때문(왕하 17:21).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정죄받지 않음. 왕상 18:30-31. 열왕기상 17 장—열왕기하 9 장은 독립적 존재의 가능성 (콜린스, 216).

B. 신명기 사가가 보는 왕중왕, 요시아

- 여로보암과 요시아 (왕상 13:2; 왕하 23:15-20)
- 솔로몬과 요시아
 - 통일왕국 분열의 주범 (열왕기상 11 장)
 - ⇒ 많은 정략결혼을 통해, 이방신들을 유입
 - ⇒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한 노역으로 인해, 갈등을 조성
 - 신명기 17:14-20 은 솔로몬왕을 염두에 두고 집필
 - 소위 왕위계승 네러티브(사무엘하 9-20 장과 열왕기하 1-2 장)는 다윗의 밋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솔로몬의 왕위등극을 기록. 여기서 다윗은 일신의 정치적 성공은 이루었을 지언정, 도덕적 성품의 결함으로 자신이나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교훈 => 솔로몬 왕위계승에 문제 제기.
 - 솔로몬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지 못함. =>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왕권인정을 위해 나왔을 때 거부당함. 신명기사가는 백성들의 지지와 승인을 왕권설립의 기준으로 삼는데, 다윗이 이런 패턴을 끊음.

- 북왕국이 신명기사가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외에 따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지, 남왕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 아님. 북왕국은 오히려 선지자 아히야의 지지를 얻음.
- 요시아가 이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침
 - ⇒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
 - ⇒ 솔로몬이 건축한 산당을 제거(왕하 23:13)
 - ⇒ 유월절을 지킨 유일한 왕 (왕하 23:21-23 => 여호수아 5:10-11; 신 16:1-6)
 - ⇒ 한 마디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왕하 23:25).
- 므낫세와 요시아
 - 왕하 23:26-27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왕국의 멸망을 예고한다.
 - ⇒ ²⁶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케 한 그 모든 격노를 인함이라.
 - ²⁷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 전체적인 문학적 맥락에서 볼 때, 이 논평의 기능은 요시아왕의 성전개혁이 므낫세왕의 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며, 요시아왕의 죽음 이후 새로이 등장한 신학적 견해=> 또한 요시아왕의 죽음은 유다멸망/심판의 시작이다.
 - ⇒ 여기에도 멸망을 예고한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 왕하 21:10-15 => 왕상 13:1-2
 - ⇒ 역대하 35:21-22 에서는 요시아의 죽음을 다르게 이해. 왜?

결론

- 신명기사가의 판단 기준은 두 개로 보인다.
 1. 야훼신앙 vs 이방신 숭배—특히 바알숭배. 예언자들 이야기의 주요 안건
 2. 예루살렘 제의—제의 성소의 단일화
- 열왕기상 17 장—열왕기하 9 장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등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후는 바알숭배를 근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이유로 정죄받는다(왕하 10:29). 신명기사가에서 ‘여로보암의 죄’가 큰 신학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후기 작품.
- 그렇기에 여로보암 이야기에 요시아왕을 거론한 것은 신학적, 문학적 고안이다. 요시아왕이 신명기사가의 왕중왕인 이유다.

생각해 보기

1. 오늘날 우리들의 예언(자) 이해와 성서의 예언(자) 이해 사이에 공통점은? 주요 차이점은?
2. 요시아와 같은 인물은 역사상 간헐적으로 반복해 일어난다. 그런데, 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자다.